

3월 22일 교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핵심 구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며,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선별된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24-29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하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5-7). 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곧 그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선별된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 언약 체제를 통해 인도함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점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3:24,25

오늘의 핵심 구절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죽으셨기에, 모세 율법 아래 존재하던 모든
구별이 이제 사라졌다는 바울의
선언입니다(디모데전서 2:5,6). 그 결과,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가복음 4:9).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는 이제 새 피조물로서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으며,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상속자라."
갈라디아서 3:29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들의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가
기독교 형제애 안에서 특혜적인 지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 민족이 율법 언약 아래에서
이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고 해서, 개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양쪽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적

차이를 무시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신실함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임을 알아야 했다. 고린도전서 12:12,13 종 제도는 이스라엘에서 규제된 제도였으며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 종이 주인의 뜻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양 축복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7:21,22). 어떤 면에서는 종의 지위가 주인의 지위보다 하늘 나라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겸손한 성품을 얻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은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에 관해 그의 세속적 지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유대 여성들은 다른 고대 문화권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법은 그들을 주로 가정 영역에 국한시켜 양육과 가정 생활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제사장직은 그들에게 배제되었으며,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전 출입도 제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가부장적 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26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온 세상에 증인이 되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충실합니다. 마태복음 24:14